

## 좌충우돌 부딪히다 다 내려놓으니 진로가 보였어요



컬러테라피스트 심민아(33)

- 2003년, 미용예술학과 진학
- 2004년, 일본에서 컬러테라피스트 전문가 과정 공부
- 2009년, 뇌과학 전공 공부
- 2013년, 창의연구소 루мина 창업

컬러테라피스트 심민아 대표는 고교 시절, 불의의 질병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닌 그녀는 서른이 넘은 후 자신의 '트루컬러'를 찾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자신이 앓는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기가 되어 미용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된 심 대표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심리'에 빠져들게 된 것은 오랜 치료 끝에 피부병이 완치된 후이다. 피부병이 나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마음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던 중 '컬러테라피'라는 마음치유법을 알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2004년 일본으로 건너가 컬러테라피스트 색채심리 전문가 과정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화장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기자 생활은 무척 즐거웠지만, 이 일만으로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당시 심리치유 방법에 심취해 있었던 심 대표는 색다른 도전을 결심한다. 뇌과학이 기술적으로 심리치료의 메커니즘을 알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생명공학대학(뇌과학 전공)에 진학한 것이다. 이후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도 도전하지만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된다. 막상 실패를 경험하니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심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봤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써내려가다 보니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컬러테라피를 만났고, 화장품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20대 내내 심리 관련 강의나 세미나 프로그램을 찾아다녔고, 서른이 돼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바로 사람들이 '트루컬러(자기 자신)'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에요."**



당시 심 대표는 창의혁신분야의 교육기업에 컨설턴트로 입사해, 디자인씽킹, 게이미피케이션 등을 경험하며 물 만난 고기처럼 즐겁게 일했다. 드디어 자신의 '트루컬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2013년 독립해 창의연구소 루мина를 창업해 지금은 5년차 1인 기업가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일이 삶인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죠."**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3호)

진로·진학(학습)·직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진로솔루션

## 항공기승무원 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커리어넷 >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Q1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국내 항공사의 경우 보통 초대졸 이상(항공사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의 학력을 요구하나,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공인어학성적표(영어, 필요시 제2외국어 포함), 암리치(팔을 뻗었을 때의 길이)·시력 등을 포함한 신체조건, 체력검사, 수영테스트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와 국제적 감각, 매너 등을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A항공사 7년차 승무원

### Q2 한 달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 달간 비행 스케줄은 8~10번 정도 됩니다. 장거리 노선(미주, 유럽, 호주 등)은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2박 3일로 배정되는데, 24시간 체류하는 경우는 현지 호텔에서 휴식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오프(비번)가 길게 배정됩니다. 동남아 노선은 보통 하루 정도 체류하고, 한일 노선과 국내선은 별도의 체류 없이 바로 돌아오는 쉼터 스케줄이 일반적입니다.

-A항공사 7년차 승무원

### Q3 비행 전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비행 출발 3시간 전 공항 근처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여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당일 비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출발시간 약 1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여 보안검색을 받은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각자 맡은 구역의 비상장비 보관과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합니다. 서비스할 식음료 수량을 확인하고 종이컵부터 티슈 등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 후 비행기에 외부인은 없는지, 폭발물과 같은 수상한 물건은 없는지, 승객들이 놓고 간 물건은 없는지 세심하게 보안 점검을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비로소 승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모든 승객이 하차한 후에도 승객 탑승 전과 동일하게 모든 공간을 보안 점검한 후 짐을 챙겨 비행기 밖으로 나옵니다. 공항에서 나와 사무장 주도 아래 당일 비행의 특이사항이나 기타 내용을 공유하며 간단한 디브리핑을 하고 퇴근합니다.

-B항공사 5년차 승무원



스튜어드를 꿈꾸는 고2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항공서비스과로 진학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3개월 정도만 교육받으면 되는데 굳이 왜 항공서비스과를 가냐고 합니다. 다른 과를 가면 취직이 더 잘 되고 메리트도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 진로전문가

"학과 선택보다 꿈에 대한 확신이 먼저랍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승무원 양성 학원 등을 통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의 채용 기준을 보면 단기 간의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스튜어드를 향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항공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학전문가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할지 판단해보세요."

항공서비스과로 진학 시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훌륭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다면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련 학과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선택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직업전문가

"직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해요."

왜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지, 승무원으로서의 장점(새로운 경험, 해외 체류, 다양한 문화의 접촉 등)뿐만 아니라 단점(불규칙한 일상생활, 야간근무 등)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어떠한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항공기 승무원을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어떤 학과에 진학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